



##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빛이 되는 기업!

### 한국중부발전(주)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뒤엔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 온 전력산업이 있어 왔으며, 그 중심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공기업 한국중부발전이 있다.

중부발전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 왔던 전력산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동력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하며, 에너지 강국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총 6개 화력발전소 보유, 국내 발전설비 용량의 약 10% 담당”

한국중부발전(주)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자원 개발을 주 임무로 2001년 4월 새롭게 출범했고, 2011년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모했다.

국내 최대 화력발전단지인 보령화력을 비롯해 6개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부발전은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10%(8,400MW)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4,000MW의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통해 차질 없는 전력공급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공기업'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매출액 8조 7천억 원과 영업이익의 4천 5백억 원 달성, 국내 화력발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기업 25위권을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발전 산업 분야의 리더이자, 나아가 해외 발전 산업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보령에서 Glocal 에너지기업으로 재탄생

중부발전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 소재 신축 사옥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당초 이전 완료시기인 6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의 확산에 따른 행사일정이 연기되었다. 외빈초청을 최소화하고 축하공연을 취소하는 등 행사 내용을 간소화하여 개최되었다.



| 본사이전 기념 보령시 머드임해하프마라톤 대회 |

신축 사옥의 외관적 특징으로 외벽은 커튼-월 구조의 격자형 루버 시스템을 적용하여 미려하고 중후한 업무용 빌딩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정문의 문주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서 비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해 날개 모양을 형상화하였다. 사무공간은 협업과 자유로운 회의 등 효율적인 업무향상을 위해 오픈형으로 구성하였으며, 휴식 공간인 옥상정원과 스마일라운지 등 스마트 오피스 및 스마트 파크 개념을 최대한 접목시켰다.

#### 중부발전 본사이전 경과

- 2007. 4 충남 보령시 이전 확정(국토부 고시 2007-126호)
- 2008. 12 본사지방이전계획 정부 승인
- 2012. 11 본사사옥 착공
- 2014. 12 본사사옥 준공
- 2015. 5 본사이전작업 완료

중부발전은 본사이전을 계기로 보령,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Glocal 에너지시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충남지역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 충남의 희망의 빛이 되겠다는 포부를 천명하고 있다.

#### 향후 10년 간 지역경제 예상 기여효과

- 지역경제 성장 : 7,500억 원
- 주민행복 증진 : 270억 원
- 문화교육 진흥 : 180억 원
- 지방세수 증가 및 본사 경상경비 집행 : 1,050억 원
- ☞ 향후 10년간 총 9,000억 원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예상

지난 5월말 기존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 2본부 4층 3실을 충남 보령시로 모두 옮겼으며, 약 250명의 임직원은 6월부터 보령 신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전 기념식이 열린 신축 본사사옥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야외조경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보령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 “세계 최초 5,000일 장기 무고장” 기록 보유, 보령3호기 2,000MW 초초임계압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

1930년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로 출발한 서울화력은 세계 최초로 도심 지하에 800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지상에는 시민들을 위한 녹색 공원과 예술공간 제공의 문화창작발전소로 거듭나고 있다.



| 보령화력본부 전경 |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표준 석탄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본부-보령화력 3호기는 지난 2013년 9월 세계 최초로 5,000일 장기 무고장 기록을 달성하며, 중부발전의 초일류 기술 수준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신보령 1,2호기 발전소는 순수 국내 기술진이 설계 제작한 총용량 2,000MW의 초초임계압 유연탄 화력발전소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발전능력을 갖춘 국내 전력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발전소인 인천화력본부는 지속적인 환경 친화경영을 통해 16년 연속 녹색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서천화력본부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 1,000MW의 신서천화력으로 대체, 건설될 예정이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제주도를 지키는 제주화력발전소는 환경감시시스템과 오염방지 기술을 도입한 자원 순환형 발전소로서 오는 2018년 200MW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증설될 예정이다.

세종천연가스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행정복합중심도시인 세종시에 20만 세대의 전기와 10만 세대의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 아시아 최고 석탄화력 발전소상 수상 국내최초 태국 전력시장 진출

중부발전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활발한 해외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탁월한 해외사업 역량이 발휘된 인도네시아 짜레본발전소는 2013년 아시아 최고 석탄화력 발전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탄중지티발전소는 2013년 인도네시아 전체 발전소 평가 1위를 달성하여 베트남 반풍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완푸와 스망까 지역에도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행 중인 중부발전은 대한민국 발전기술의 저력을 세계 곳곳에 펼쳐나가고 있다.



| 인도네시아 짜레본발전소 |



| 인도네시아 탄중지티발전소 |

또한, 국내 발전회사 중 최초로 태국 전력시장에도 진출하여 나바나콘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을 통해 해외 가스복합 발전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미국 네바다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의 약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 밖에 중부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인 강원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철소 고로의 부생 가스를 발전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현대그린파워,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익산상공에너지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는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중부발전의 마음이다.

전 세계적 화두인 온실가스 최대한 감축차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보령화력 8호기에 설치함으로써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만 톤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내 118개 봉사팀 활동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

중부발전은 결코 혼자 달리지 않는다. 해외 발전사업 경험과 국내 건설사의 기술력을 융합한 협력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는 언제나 중소기업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발전과도 함께하고 있다. 러브하우스 건립, 환경정화,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 '희망의 빛, 생명의 바다' 프로그램으로 사내 118개 봉사팀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 NGO 단체인 이베카와 함께 소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빈곤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전기 판매 수익금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등 발전소 운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보령화력본부 전경 |

이정릉 기획관리본장(現 사장 직무대행)은 “이제 우리 중부발전은 대내외적으로 탐스럽게 맺은 여러 성과와 결실들을 충남 지역을 위해 나누고 또 나눌 것이며, 지역과 상생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착실히 성장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사이전을 계기로 중부발전은 과거보다 더 굵고 강한 가닥으로 충남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앞으로 충남지역의 품 안에서 보듬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며,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처럼 우리 중부 발전을 아끼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